

# 160억 들인 무안 초의선사 탄생지 관리 영망

### 차역사박물관 전시관 텅 비고 일대기 동영상 고장 방치 구입한 유물·자료는 수장고에 낫잠... 대표 관광지 무색

무안지역 대표 관광지로 조성된 초의선사탄생지가 각종 시설물이 고장 난 채 방치되는 등 흉물로 전락하고 있다. 160억원을 투입해 무안의 대표 관광지로 조성했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다.

9일 무안군에 따르면 지난 1997년 시작된 초의선사현장사업이 지난 6월 말 준공됐다. 총사업비만 160억(국비 52억, 도비 5억, 특별교부세 10억, 군비 95억)이 투입됐다. 초의선사 탄생지는 초의선사 생가를

비롯한 초의선사기념관, 다성사, 초의차역사박물관, 교육관, 명선관, 금오초당, 무문관(차문화체험관), 일지암, 용호백로정, 관리사무소 등 총 11동의 시설물이 들어서 있다.

초의선사현장사업은 조선시대 시(詩), 서(書), 화(畵), 다(茶), 선(禪) 5월로 추앙받던 초의선사의 탄생지인 무안 삼향지역이라는 점을 알리고, 다도 성자의 입지 다지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03년부터는 매년 5월 초의선사 탄생일을 맞아 초의선사문화제가 열리는 등 초의선사 탄생지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들이 전개되고 있다.

하지만 시설물 관리의 영망이다. 조선차역사박물관은 유리진열장 3곳은 개폐는커녕 전시물조차 한점도 없어 텅 비어 있다. 군은 이곳에 전시할 초의선사 관련 유물과 자료를 구입해 놓고도 수장고에서 넣어두고 있다.

초의선사기념관 역시 초의선사 일대기 동영상도 작동하지 않았는가 하면 초의선사자료 검색기와 CCTV 작동도 멈춰 있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막대한 예산

이 투입된 초의선사탄생지의 시설물이 방치돼 외지인들에게 대표 관광지로 소개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라면서 “시설물 개보수는 물론 인근 학교들과 연계한 인성교육을 겸한 다도체험 등 다양한 활성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무안군 관계자는 “진열장 등은 올해 개보수할 계획이며, 영상기기 교체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안군은 초의선사탄생지 관리 시설비로 2000만원, 전기료 등 일반운영비 3000만원 등 매년 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무안=김민준기자 jun@

## 승달국악대제전 폐막 대통령상에 조혜정씨

국악인 한마당 행사인 '제13회 무안 전국승달국악대제전'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무안군 승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전국승달국악대제전은 국악계의 명인·명창인 강용환, 강남중, 강태홍 등 무안 출신 명인·명창을 기리기 위한 것으로, 국악인의 등용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는 현악, 관악, 판소리, 무용, 가야금 병창, 판소리 고법 등 6개 분야에서 새로운 명인·명창 등극을 놓고 전국의 국악지망생 290명이 열띤 경쟁을 펼쳤다.

특히 올해 대회부터는 종합대상이 대통령상으로 승격돼 그 위상을 더했다.

대회결과 종합대상인 대통령상은 서울시 강남구에서 일반부 무용부문에 참가한 조혜정(여·56)씨가, 국무총리상은 일반부 판소리부문에 출전한 경기도 성남시 김백송(44)씨가 각각 수상했다. /남악=임동원기자 idh@



천연유화제 만들기 교육  
알해유농촌지도사회원(회장 고행주)들이 지난 8일 농업기술센터 토착미생물 배양 교육장에서 천연 유화제 및 황도유화제 만들기 교육을 받고 있다. <신안군 제공>

## “힘으로 해보자는 것이냐” vs “그럼, 태권도로 해볼까요” ‘막말 논란’ 함평군의의회, 이번엔 한심한 언쟁 구설수

함평군의의회가 '집행부 간부공무원에 대한 막말 논란' <광주일보 7월 9일자>에 이어 의회 의정실에서 의원들간 사대질과 수준 이하의 언쟁을 벌인 것이 알려지면서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9일 함평군의의회에 따르면 함평군의의회 의정실에서 열린 'L군의원의 공무원에 대한 막말(갑질) 논란 진실규명'을 위한 특위 구성을 비롯한 의원간 의견 소명 회의에서 일부 의원들끼리 말싸움이 벌어졌다.

이날 말싸움은 J(67)의원이 언론에

보도된 'L의원(48) 갑질논란 진상규명' 건에 대해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자라는 의견을 표명하면서 시작됐다.

L의원이 자신의 막말 논란과 관련해 강경보다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자는 J의원에게 사대질을 했고, J의원은 “힘으로 해보자는 거냐. 나도 힘으로 하면 서장, 군수도 할 수 있다”고 대응했다. 이에 L의원은 “태권도로 한번 해볼까요” 등 수준 이하의 언행을 보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한 여성의원도 L의원 사

건에 대해 언론 인터뷰에 응했다는 이유로 L의원의 거센 항의를 받은 뒤, 울음을 터트리기도 했다.

이러한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함평 군의원들의 자질이 심히 의심스럽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함평군의의회 의장은 “기억이 잘나지 않는다. 의원들간 서로 사과하고 잘 지내고 있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함평=황운학기자 hwang@

## 편의시설 없어 놓치는 섬 손님

### 신안 섬 여행 인기 속 숙박시설 등 확충 서둘러야

신안지역 섬 관광객들이 펜션 등 체류·편의시설 부족으로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오는 2018년 압해도와 압태, 자은, 팔공, 안좌 등 중부권을 잇는 새천년대교가 개통되면 신안을 찾는 관광객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관광 인프라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9일 신안군에 따르면 천혜의 절경을 자랑하는 다도해의 보물섬들이 밀집된 신안지역은 다른 곳에서는 경험하기 힘든 섬 특유의 자연과 문화, 역사, 청정 먹거리 등을 즐기기에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비금과 도초, 흑산도 등은 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돼 있으며 은빛 모래사장으로 유명한 자은과 입자도 대평지구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전남의 대표 관광지다.

군이 최근 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자은면 둔장해변 일대를 관광단지 지정하고, 대규모 관광객이 체류할 수 있는 관광기반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리조트 조성 등 대규모 투자개발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최근 수도권 직장인들을 중심으로 섬과 숲을 찾아 힐링하는 관광상품이

인기를 끌면서 전국 최대 섬을 보유하고 있는 신안구도 이들을 겨냥한 관광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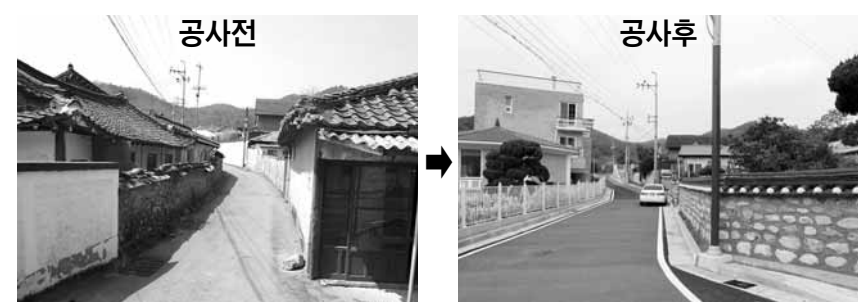
하지만 흥도와 증도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섬에는 체류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열악해 방문객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최근 경기도 수원에서 가족과 함께 도초도와 비금도를 찾은 서준성씨는 “당초 2박3일 계획이었지만 숙박 편의시설 부족으로 너무 불편해 1박 2일로 일정을 단축했다”면서 “가족과 머무를 수 있는 깨끗한 숙박시설이 없어 아쉬웠다”고 말했다.

신안섬 관광투어 상품을 판매중인 여행사 관계자들도 “관광개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방문객의 편의시설이 함께 구축되어야만 장기적인 관광객 유치에 성공할 수 있다”면서 “신안 섬 지역은 뛰어난 관광자원에도 불구하고 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숙박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한계를 느낀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신안군 관계자는 “관광객 편의 증대를 위해 민간 주도의 펜션 등 숙박시설 설립을 유도하는 한편 관광진흥기금 융자 등의 혜택을 집중 홍보·지원하는 방식으로 편의시설 확충에 나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

## 함평리 일대 주거개선사업 '깔끔해졌네'



노후주택을 철거하고 도로를 새로 단장한 함평군 함평리 보광사 입구 함평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현장.

### 70억 투입 주택·도로 정비 주민쉼터·소공원도 조성

함평군이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추진한 함평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완공됐다.

9일 함평군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으로 지난 2013년부터 총사업비 70억원을 투입해 함평을 함평리 일대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을 정비했다.

이 지역은 지난 60~70년대 지어진 노후 건축물이 밀집해 있는 곳으로, 도로 폭이 좁아 차량통행이 어려운데다 주거

환경 등도 열악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군은 소도로 5개 노선을 새로 개설하고 3개 노선은 폭을 넓히는 한편 악취 발생의 주범이었던 기존 상·하수도를 교체 또는 신규 매설했다. 또 주차장 3곳을 신설했으며 빈집터를 활용해 주민쉼터와 소공원도 조성했다.

주민들도 크게 만족하고 있다.

이 마을의 한 주민은 “도로가 좁고 오래된 집들이 많아 외면받던 마을이 공사 이후 외부에서 토지 등을 보러오는 방문객이 이어질 정도로 살기좋은 곳으로 탈바꿈했다”고 말했다. /함평=황운학기자 hwang@

### 법원경매(공매, NPL) 조여사 추천물건

**010-6211-4585**

- ★북구 두암동 구면허시험장입구 삼거리부근  
대지677㎡ 건물377㎡ 위치, 접근성★★★★★  
2층건물, 세차장있음, 현주유소  
감정가11억9천 최저가8억3천3백 감정가의70%
- ★북구 일곡동 일곡중앙교회인근 카페거리  
대지754.6㎡ 건물1653㎡ 지하1층~지상4층(E/V있음)  
식당, 카페, 프랜차이즈 상권중심 수익성★★★★★  
감정가16억2백 최저가11억2천 감정가의70%
- ★서구 광천동 4층다가구주택 수아비스웨딩홀뒷편  
대지240㎡ 건물411㎡ 건물상태, 투자★★★★★  
광천동 재개발지역, 9월중 조합설립인가 추진중  
감정가4억4천8백 최저가4억4천8백
- ★동구 학동 지하2층~지상5층 근린주택  
대지456㎡ 건물1802㎡ 전대병원맞은편 도로접  
양·한방병원 위치, 접근성★★★★★  
감정가23억2천2백 최저가16억2천6백 감정가의70%
- ★북구 두암동 지하1층~지상3층근린주택  
대지198.2㎡ 건물512㎡ 접근성★★★★★  
헤어샵, 의류매장 모든업종가 시내버스승강장부근  
감정가3억9천8백 최저가3억1천9백 감정가의80%

※토지, 주택, 상가, 공장, 전금대출까지 상담가능  
맞춤형 부동산 컨설턴트 (주)다와옥션

### 투데이 옥션 부동산경매 추천물건

- 광주 두암동 주유소부지  
4차선 대로변 코너 위치 아파트와  
주택가 상권 신축 건물부지적합  
대지 677㎡ 건물 350㎡  
감정가 11억 8천 최저가 11억 8천
- 광주 동구 학동 근린건물  
전대병원 맞은편 위치  
병원, 음식점, 편의점, 커피숍 추천  
지하 2층 ~ 지상 5층  
대지 456㎡ 건물 1779㎡  
감정가 23억 2천 최저가 16억 2천
- 광주 광산구 평동산단  
5번좌로 공장  
건물 4층 기계기구 포함  
대지 3495㎡ 건물 2308㎡  
감정가 19억 7천  
최저가 13억 8천
- 광주 북구 일곡동 근린 상가주택  
사거리 코너 위치  
지하층 ~ 지상 5층  
대지 755㎡ 건물 1360㎡  
감정가 16억 최저가 11억 2천
- 광주 북구 각화동 상가건물  
각화동 금호타운 맞은편위치  
요양병원 추천, 지상층 ~ 지상3층  
대지 1115㎡ 건물 1749㎡  
감정가 22억 3천 최저가 15억 6천

**경공매전문가 이현석**  
**010-9963-6345**

### 구 남영비즈타워가 상무비즈니스센터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시청도보 5분 거리 | 관공서 밀집 지역 | 오피스 전용 빌딩 | 넓은 주차공간 | 저렴한 관리비

임대문의: 010-2633-1100 | 관리실: 062-381-5551 | Fax: 062-384-5551